

 인천광역시	보 도 자 료		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뿐입니다
	배포일자	2023년 3월 22일(수) 총 3매	
담당 부서	감염병관리과	담당자	• 감염병예방팀장 조인향 ☎440-7851 • 담당자 박안나 ☎440-7854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말라리아 전파 사전 차단 강화하기로
- 말라리아 퇴치 전담팀(TF) 구성해 심층역학조사, 경보발령 등 강화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인천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강화된 말라리아 퇴치사업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.

말라리아는 매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, 주로 인천, 경기 및 강원북부지역서 4월부터 10월 사이에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. 오한, 고열, 발한 등 코로나19 또는 감기몸살과 증상이 비슷해서 해열진통제만 복용할 경우 말라리아 진단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,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.

올해 강화된 계획에는 말라리아 퇴치 전담반(TF, 태스크포스)을 구성해 군집(추정)사례*에 대해 신속 대응과 함께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, 경보를 발령하는 등 말라리아 전파를 사전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.

* 군집사례 : 군집추정사례 중 유전형 분석 결과 유전형이 동일한 경우
군집추정사례 :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환자간 증상발생 간격이
30일 이내이고,환자 거주지 거리가 1km이내인 경우

특히 시는 복약점검 및 완치조사, 매개모기 발생 모니터링, 환자 거주지 주변 집중 방제, 예방수칙 교육·홍보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, 질병관리청 등 관련 기관과 주기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.

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“말라리아가 없는 건강한 인천을 위해 시의 역할을 강화했고, 군·구에서는 동절기 유충 방제 등을 통해 하절기에 활발히 활동하는 말라리아 매개모기를 사전에 퇴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” 며 “말라리아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예방 수칙을 준수해 달라” 고 당부했다.

붙임 [참고] 말라리아 예방수칙 안내 카드뉴스 1부

참 고

말라리아 예방수칙 안내 카드뉴스

모기와 거리두기 실천으로 말라리아를 예방하세요!

질병관리청

말라리아 증상은?

몸이 으슬으슬 춥고 열이 나는데...
코로나인가?

감기처럼 으니 좀 괜찮은 것 같다가 다시 열이 나네...
감기증상이 아닌가?

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삼일열말라리아의 경우 **오한, 고열, 발한 등 증상이 48시간 주기로 반복**됩니다. 말라리아는 잠복기(7일~12개월)가 다양하므로 모기에 물린 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

질병관리청

이것만은 주의해주세요

말라리아는 코로나19 또는 감기몸살과 증상이 비슷해서 해열진통제만 복용할 경우 말라리아 진단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**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여행력 및 모기물림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**

질병관리청

검사 및 치료

말라리아는 신속진단검사(ROT)로 15분 만에 간단히 감염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, 신속히 치료하면 완치 가능합니다.

질병관리청

말라리아 예방수칙 4단계

- 야간활동자제**
모기는 야간에 활발하게 활동하므로 해질녘에서 새벽까지 야간 활동 자제
- 밝은 색 옷 입기**
모기는 어두운 색을 좋아하므로 야간 활동 시 밝은 색의 옷 착용
- 기피제와 살충제 사용**
상저나 얼굴 주변엔 피에서 악취를 풍기는 기피제 사용
- 방충망 정비**
실내로 모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충망에 틈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

질병관리청

말라리아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.

말라리아에 감염되지 않도록 모기와 거리두기를 실천하세요!

질병관리청